

# 전국 최대 규모 독서축제 열린다

김해 '대한민국 독서대전' 맞아  
8월부터 SNS 독서 릴레이 실시

김해시가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맞아 SNS 독서 릴레이인 '100권의 책, 100개의 수다'를 운영한다. 김해시는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김해문화의전당 등에서 펼쳐지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독서축제인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100권의 책, 100개의 수다'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100권의 책, 100개의 수다'는 김해시민 전 국민에게 추천하는 그림책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독서 릴레이다. 개인 SNS 계정을 가진 누구나 공식 누리집(www.2018대한민국독서대전.kr)에서 본인 인증 후 1인당 1권씩 그림책을 신청할 수 있다. 배송받은 책은 개인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해시태그를 걸어 인증샷을 남기고 간단한 소감문과 함께 주변 지인들에게 그림책을 다시 전달하면 된다. 또한, '100권의 책, 100개의 수다'에 선정된 그림책 작가를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 행사 기간에 만나는 '백백책 모임'과 그림책을 전시하는 '여기있다: 100권의 책, 100개의 수다'도 기획 중이다.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독서의 달 기간 김해시립 공공 도서관에서 쪽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100권의 그림책 선정을 위해 지난달 그림책 강사, 사서, 독서지도사, 교사 등 총 5명의 선정단을 꾸려 독서 동아리, 그림책 연구 모임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500여 권의 그림책을 선별했다. 선정단은 그림책 중에 가족 이야기,

글자 없는 그림책, 동물은 친구야 등 총 10개의 주제에 따라 전 연령대가 함께 읽기 좋은 그림책 100권을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독서대전 개최까지 70여 일이 남았다. 영남권 최초로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유치하게 된 만큼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음을 느낀다"며 "지금까지의 독서대전을 뛰어넘는 탄탄한 행사 기획으로 대한민국 책의 도시 김해의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대한민국 독서대전과 관련한 연중 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음락 기자 rock@kndaily.com

## 브릿지경제 김해시, '100권의 책, 100개의 수다' 운영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연중 프로그램... "전국민 독서 릴레이"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책의 도시' 선포식



지난 4월 20일 개최된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책의 도시' 선포식

경남 김해시는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김해문화의전당 등 김해시 일원에서 펼쳐지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독서축제인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100권의 책, 100개의 수다'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5월 그림책 강사, 사서, 독서지도사, 교사 등 그림책을 사랑하는 연구자이자 학부모인 5명의 김해시민이 글쓰기 및 독서지도 공간인 '그림책을 품다'에 모였다. 그림책 선정단은 공공도서관 독서 동아리, 그림책 연구 모임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500여권의 그림책 중에서 가족 이야기, 글자 없는 그림책, 동물은 친구야, 인생 맛보기, 친구 우정, 학교 생활, 함께 생각해보기 등 10개의 큰 주제에 따라 전 연령대가 함께 읽기 좋은 그림책 100권을 선정했다. 김해시민이 전 국민에게 추천하는 그림책, '100권의 책, 100개의 수다' 독서 릴레이는 개인 SNS 계정을 가진 누구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1인당 1권씩 신청할 수 있다. 그림책을 배송 받은 후에는 개인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해시태그를 걸어 인증샷을 남기고 간단한 소감문과 함께 주변 지인들에게 그림책을 다시 전달하면 된다. 김차영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독서대전 개최까지 7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 영남권 최초로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유치하게 된 만큼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음을 느낀다"며 "역대 독서대전을 뛰어넘는 탄탄한 행사 기획으로 대한민국 책의 도시 김해의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과 관련한 연중 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해시, '100권의 책, 100개의 수다' 운영

(김해=국제뉴스) 황재운 기자 = 김해시는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김해문화의전당 등 김해시 일원에서 펼쳐지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독서축제인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100권의 책, 100개의 수다'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5월 그림책 강사, 사서, 독서지도사, 교사 등 그림책을 사랑하는 연구자이자 학부모인 5명의 김해시민이 글쓰기 및 독서지도 공간인 '그림책을 품다'에 모였다. 그림책 선정단은 공공도서관 독서 동아리, 그림책 연구 모임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500여권의 그림책 중에서 가족 이야기, 글자 없는 그림책, 동물은 친구야, 인생 맛보기, 친구 우정, 학교 생활, 함께 생각해보기 등 10개의 큰 주제에 따라 전 연령대가 함께 읽기 좋은 그림책 100권을 선정했다. 김해시민이 전 국민에게 추천하는 그림책, '100권의 책, 100개의 수다' 독서 릴레이는 개인 SNS 계정을 가진 누구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1인당 1권씩 신청할 수 있다. 그림책을 배송 받은 후에는 개인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해시태그를 걸어 인증샷을 남기고 간단한 소감문과 함께 주변 지인들에게 그림책을 다시 전달하면 된다. 김차영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독서대전 개최까지 7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 영남권 최초로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유치하게 된 만큼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음을 느낀다. 역대 독서대전을 뛰어넘는 탄탄한 행사 기획으로 대한민국 책의 도시 김해의 위상을 정립할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과 관련한 연중 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일요신문

## [김해시 브리핑]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준비에 분주 하

[경남=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준비에 분주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선포식 모습

국내 최대의 독서문화 축제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와 김해시는 차별화된 독서대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다.

시는 지난 2월 2일, 개최지로 선정된 이후 파주북소리축제 총감독을 역임한 이근욱 (원)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겸임교수를 독서대전 총괄감독으로 선임했다.

이후 4월 20일엔 2018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을, 지난달 15일엔 행사의 전문성을 다지기 위해 발족한 추진협의회 회의를 각각 개최한 바 있다.

아울러 분야별 실무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과 관내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이뤄진 종합행정지원협의회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구성해 독서대전의 단계별 추진을 차근차근 이끌어갈 계획이다.

독서대전의 추진목표와 추진방향, 행사전략 등을 두루 담아낸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기본계획'도 이달 말 공개된다. 김해시는 기본계획 안에 담아낸 독서대전의 세부 프로그램들을 통해 독서대전의 범업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시는 이번 독서대전의 슬로건을 '#함께 읽을까?'로 정했다. SNS로 소통하는 젊은 세대의 감각이 반영된 '#함께 읽을까?'는 거창하고 딱딱한 시선에서 탈피한 감성적이고 경쾌한 느낌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2018 책의 해' 슬로건인 '#무슨 책 읽어?'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된다.

홍보에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세계 책의 날 행사 및 서울국제도서전 기간 홍보 부스 운영, 홍보영상물 제작, SNS 및 블로그 홍보 등 온·오프라인을 두루 활용해 시민 참여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지난 5월 31일엔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전용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축제 관련 전반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됐다.

한편, 시는 독서대전 본행사에 앞서 연중 독서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다. 김해시민의 추천으로 선정된 100권의 그림책으로 전국민 대상 독서릴레이를 펼치는 '100권의 책, 100개의 수다', 동네 책방과 독립서점에서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동네책방&독립서점 작가 나들이' 등의 프로그램들을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과서 밖에서 만나는 동시 작가', '김해시 올해의 책 가족극 공연'같은 프로그램들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 5월 30일엔 시민단체, 도서관 운영자 등으로 구성된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 성공 기원 집담회'를 개최해 독서대전의 성공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과 김해시 도서관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7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가야의 거리 일원에서 진행되는 본 행사는 이번 2018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하이라이트다.

공공기관, 출판·독서·교육계, 시민사회 등 전국 120여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본행사는 크게 공연행사, 학술토론, 전시체험 등 3가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연행사는 전국최대규모의 '남북공연대회', 남북과 여행을 접목한 '야간문학기행', '스토리텔링 가야금 공연'등으로 꾸며져 구비문화의 본고장인 김해의 독창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술토론은 '한국 그림책 30년, 이야기를 이어가다'를 주제로 한 '그림책 포럼',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한 집단 토론인 '작은도서관 심포지엄', 독서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국제독서컨퍼런스' 등 각계각층의 독서공동체가 중심이 된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전시체험은 한국 그림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책 전시', 참가자들이 한 페이지씩 릴레이로 읽어 완성하는 '시민참여 오디오북' 등 독서의 즐거움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마련됐다.

이외에도 전국출판사 부스, 독립서점 연합부스, 1인 출판사 연합부스를 총망라한 '북페어', '수요이야기 책방', '시간을 달리는 아이들'같은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들도 만나볼 수 있다.

허성근 김해시장은 "영남권 최초로 독서대전을 유치한 만큼 '유치를 위한 유치'에 그치지 않고 그 어느 해보다 의미 있고 독서 있는 독서대전을 만들겠다"며 "이번 독서대전을 통해 가야왕도 김해가 명실 공히 대한민국 책의 수도로 우뚝 설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